

『은혜의 보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동시에 가지셨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지직과 제사직과 왕직을 가지고 계시며 사람이며 하나님이며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으시고 구속의 대업을 족으심과 부활로 완성하셨다. 본문은 큰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다.
기도하기	첫째, 큰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는 유대인 중에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이 아론이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위대한 대제사장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땅의 대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직을 수행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존전에서 섬기고 계신다.
성경읽기	둘째,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체휼하시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체휼하다’는 ‘동정하다’, ‘함께 느끼다’, ‘함께 고통 받는다’는 의미로 예수님은 내가 고통을 느낄 때에 나와 같이 고통을 느끼며 내가 아파할 때에 실제로 아파하시며 나와 똑같이 고통을 겪으신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동일하게 공감하시는 분이므로 능히 인간을 도우실 수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오늘의 메시지	셋째,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보좌 곧 권위, 권세, 영예, 영광, 존귀, 위엄의 자리에 좌정해 계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계시며 세상 죄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신 완전한 인간으로서 세상의 구주가 되셨다.
함께 기도하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 우리의 대변자시고 중보자시며 대제사장이 되신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주기도문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깊게 뿌리박은 믿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성도들에게는 추구해야 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하나 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갈망과 준비다. 이 세계에 대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웰빙’도 가능하고 ‘웰다잉’도 가능한 것이다.
기도하기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의 뿌리다. 뿌리를 튼튼히 할 때 승리하는 인생이라는 거목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다. 믿음은 누리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안식에 거하는 것이다. 그것을 ‘은혜의 파도타기’라 말한다. 바다를 피하거나 바꿀 수는 없다. 바다를 떠나서 살 수 없다면, 물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물에 뜨는 자로, 더 나아가 자유롭게 수영하는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이 생존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성경읽기	하지만 오늘 우리의 문제는 피상적인 믿음에 있다. 신앙의 깊이가 너무 얇은 것이다. 그래서 바람 불고 파도치면 곤두박질하고 발버둥치는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과과의 만남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인정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무한한 용기와 인생의 가치를 깨닫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힘이 된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은 이 세상 이후의 삶을 준비하고 갈망하며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이곳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갈망하면서도 이 땅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것이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일사각오의 마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자.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허탄한 듯이 들려』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안식 후 첫날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다. 그런 그녀들에게 두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다. 여인들은 즉시 이 모든 사실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 하지만 사도들은 그녀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렸고, 그 사실을 믿지 않았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다.
기도하기	이처럼 그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긴 것은 무슨 이유에서였을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활 예고를 기억하지 못했기에 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했고, 사도들은 정신이상자의 말로 치부해 버린 것이며,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신하지 못한 것이다. 그들이 만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했다라면 고통과 슬픔과 절망의 장소인 무덤에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경험하고 기쁨과 소망을 얻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을 것이고, 사도들은 죄와 사망을 이겨내신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승리를 경험했을 것이다.
오늘의 메시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천 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삼일 째 되는 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하지만 우리가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도 우리 삶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그래야만 예수님의 족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소망과 능력이 되어 그리스도와 연합된 진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본문 나누기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

【오늘의 메시지】

찬송하기

찬송가 556장
찬양은 가정에서
자유롭게 정해도
좋습니다.

기도하기

가족 중의 한 사람
이 기도를 합니다.

성경읽기

가족이 함께 돌아가
면서 읽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가족들이 함께
나누어 읽습니다.

본문 나누기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함께 기도하기

한 주간 함께
기도할 기도제목을
정하고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라고 주신 두 기관이 있는데, 그것이 가정과 교회이다. 이 둘의 공통점이 있는데 이를 알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다. 그럼 공통점은 무엇일까?

첫째, 가정과 교회를 움직이는 동력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곧 깨어지게 되고, 사랑이 없는 교회는 인간의 욕심의 이전투구의 장으로 변질된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이다. 요일 4:7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한다. 즉 사랑이라는 자원은 십자가에서 나온다.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아니고는 타인을 사랑할 수 없다.

둘째,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사람이 주인이 되면 가정도 쉽게 무너지고,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온전해 진다. 교회 역시 하나님이 주인이실 때 부흥의 역사가 있고, 교회다울 수 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셋째, 가정과 교회는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시고 축복하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창1:28)고 하셨다. 땅에 충만해지는 비결이 바로 가정이 새롭게 들어나는 것이다. 교회 역시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지만, 결국에는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전도되고, 새롭게 작은 구역이나 목장들로 확장되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가라고 가정과 교회를 주셨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의 통로이기에 이 두 곳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한다.

【본문 나누기】

가족 구성원이 오늘의 본문 중에서 느낀 것을 자유롭게 나누도록 합니다.

☆ 신앙의 오솔길

행복을 찾는 막다른 두 길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길을 보여 주신다. 하나는 도덕적 순응의 길이고, 또 하나는 자아 발견의 길이다. 둘 다 인생관에 색깔을 입히는 렌즈이자 세계관을 형성하는 틀이다. 둘 다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찾는 길이고, 세상의 악을 해결하는 길이며,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길이다.

비유 속의 형은 도덕적 순응의 길을 대변한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으로 그 신분을 잃지 않고 그분의 복과 최종 구원을 받으려면 성경에 엄격히 순종하는 수밖에 없다고 믿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 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뿐이다. 물론 간혹 넘어질 수도 있으나 그럴 때 우리가 심판받는 기준은 얼마나 비통하고 간절하게 뉘우치느냐는 것이다. 이 관점대로라면 우리는 실패한 와중에도 늘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비유 속의 동생은 자아 발견의 길을 대변한다. 고대의 가부장적 문화에도 이 길을 택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으나 오늘날에 훨씬 많다. 이 틀의 주장대로라면 개개인의 관습과 인습을 초월해 자유로이 각자의 목표와 자아실현을 추구해야 한다. 이 관점에 따르면 전통, 편견, 위계적 권위 등 개인의 자유를 가로막는 장벽이 약화되거나 제거될 때 세상은 더 나은 곳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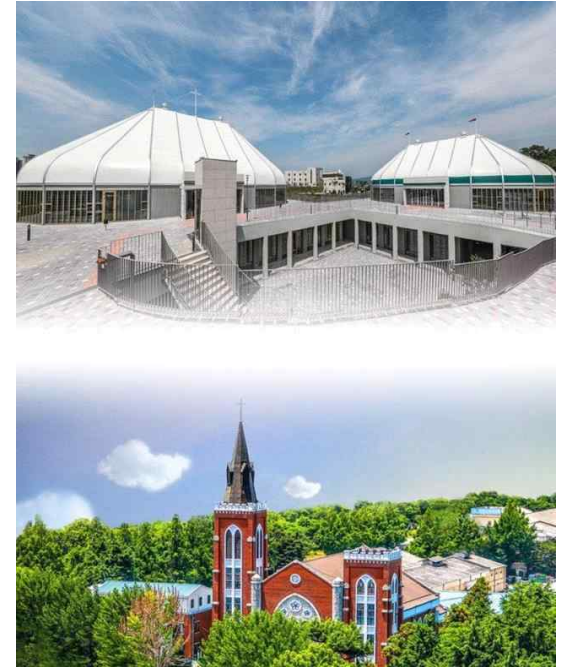
서구 사회는 뿌리 깊게 이 두 접근으로 양분되어 있어 누구도 그 외의 삶의 길이 있다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다. 당신이 한쪽을 비판하거나 거리를 두면 모두 당신이 다른 쪽을 택했다고 단정한다. 양쪽의 접근 모두 온 세상을 두 가지 기본 집단으로 갈라놓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순응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제멋대로 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도덕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자아 발견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말한다. “진리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완고한 사람들이 세상의 문제다. 해답은 진보적인 사람들에게 있다.” 양쪽 다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길이 곧 세상을 바로잡는 길이다.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둘 중 하나의 범주에 속한다고 결론지어야 할까?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삶의 시절에 따라 이쪽 전략을 시도하다가 저쪽으로 넘어간다. 한 성격 안에 두 접근이 공생하는 경우도 있다. 예수님의 비유에 담긴 메시지는 양쪽 다 틀렸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혀 다른 대안이 비유 속에 예시된다.

To be continued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 중』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림교회**

위임목사 : 최 용 희

임동 예배당 : 광주광역시 북구 경양로 7 T.525-5252 F.525-5260
수완 예배당 : 광주광역시 광산구 상완길 303 T.525-0303 F.525-0301